

스크린에 비친 일상의 페미니즘



오늘~26일 문화전당·동산아트홀
생리대 논란·비정규직 등 소재
10개국 42편 전편 무료 상영
관객이야기 공모 영화 제작도

제8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지금, 페밍아웃'이다.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하는 것은 일상의 변화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팽배한 성차별적 상황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김보람 감독의 '피의 연대기'는 생리와 생리대의 역사를 각계각층의 인터뷰와 애니메이션으로 흥미롭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다.

25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 '생리일토크:밖으로 나온 생리'에는 '월경의 정치학' 저자 박이은실이 이야기손님으로 나와 사회인문



폐막작 '돌아가는 길'

적으로 여성의 생리와 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폐막작은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지는 감독의 '오늘의 자리'와 '돌아가는 길'이다. 두 편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청춘들의 고민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24주', '수성못', '죽여주는 여자', '비밀패밀리', '미리클 벨리에', '줄리애다', '어플로지' 등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긴 10개국 42편의 영화가 준비됐다.

세 번째 '관객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하며 선정된 작품은 전문가들이 참여, 시나리오로 각색하고 내년에 영화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 2017년 광주에서 제작된 여성감독의 작품을 모아 포커스 토크 '2017 광주여성영화를 말한다'가 24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열리며 시네페티토크 시간에는 성소수자, 여성들의 정치 참여 등 다양한 주제로 펼쳐진다.

광주여성영화제는 전편 무료로 상영된다. 놀이방과 관객카페가 운영되며 로비에서는 사이렌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홈페이지(http://cafe.daum.net/wffig) 참고. 문의 062-515-6560, 010-7101-575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김연 피아노 독주회 내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김연(사진) 독주회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김씨는 광주예고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졸업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과정,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 점수로 마쳤다. 또 독일 Lepthien 피아노콩쿨 2위, 이태리 Vietri sul Mare 국제 콩쿠르 등에서 수상했다.

광신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씨는 현재 광주 피아노아카데미, CN Piano, 연주회 회원, 한국피아노학회 연주부와 연구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연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환상곡 D단조', '피아노 소나타 D장조', 말리 발라키레프의 '동양적 환상곡',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등이다.

티켓 가격 전석 2만 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4301-1929.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백화점으로 나온 온라인 미술경매

롯데갤러리 28일까지 A옥션 프리뷰 전시

롯데갤러리와 A옥션이 특별한 경매 행사를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롯데갤러리는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경매작품 프리뷰 전시를 진행한다.

A옥션은 수도권 외 호남 지역에서 유일한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설립돼 올해로 창립 10년을 맞았다.

이번 경매에서는 소치 허련, 의재 허백련, 남농 허견, 임진순, 정승주, 송필용, 오승운, 진양욱, 황영성, 사호 송수면, 홍성담, 평보 서희환, 김대중 등 광주 전남 출신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김창열, 이영배, 전광영, 박서보, 최영림, 권순철, 이숙자, 최석운, 김중학, 소정 변관식, 정전 이상범, 심산 노수현, 이당 김은호, 표암 강세황, 해원 신윤복, 운보 김기창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해원 신윤복의 '매화석류도'와 표암 강세황의 '묵란도' 등 지역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작품들이다.

롯데갤러리에서는 출품작 중 하이라이트 작품 50여점을 전시하며 옥션 홈페이지에는 선 공개한 작품을 포함해 20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을 방문하면 간단



표암 강세황 작 '묵란도'

하게 아트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출품된 작품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25일 오후 3시에는 작품 설명회(선착순 20명·문화센터 접수)도 열린다.

본격적인 인터넷 경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A옥션 홈페이지(www.a-auction.co.kr)를 통해 진행된다. 경매 마감은 29일 오후 3시며, 응찰은 A옥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문의 02-725-8855, 062-221-18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충북 괴산군에 동지를 쓴 숲속작은책방은 동화 속 요정이 사는 집 같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면 해먹이 설치된 야외책방과 어린이 책으로 꾸민 원두막 책방이 방문객을 맞는다. 1층 천장까지 빼곡히 들어찬 거실의 서가에는 그림책에서부터 인문서, 여행서적, 소설, 에세이 등 2000여 권이 꽂혀 있다. 외지인이 방문하기엔 쉽지 않지만 한 달 평균 600여 명이 다녀간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숲속작은책방은 독특한 운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방문객들은 무조건 1권의 책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책

셀러 등을 판매했던 예전의 서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4년을 기점으로 동네서점의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1곳의 독립서점이 문을 열었고 2016년 말 기준으로 31곳이 더 늘어났다.

동네서점의 부활을 이끈 일등공신은 개정도서정가제(이하 도서정가제)다. 지난 2014년 11월 쇠락해 가는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모든 책값 할인을 최대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를 도입한 게 계기가 됐다. 당시만 해도 오프라인 서점은 최대 60~70% 싸게 파는

개정도서정가제 3년 '명과 암'

방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구경만 하고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 주인공의 표현을 빌리자면 방문객은 서점을 둘러본 대가로 '행복한 소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경은 서점에서 하고 구입은 인터넷에서 하는 이들에게는 가슴이 뜨끔(?)해질 얘기가.

지난해 4월 경기도 분당에 문을 연 '좋은 날의 책방'은 '단골의 한 칸 서가'로 유명하다. 주인공은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책을 서점에 들여놓기가 어렵다 보니 엄선한 책들을 서가에 꽂아 놓는다. 기준은 읽어보니 좋았던 책이나 읽어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이다. 단골고객의 입장에서 신간의 흥수 속에서 놓쳤던 의미 있는 책들을 뒤늦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책방 주인과 단골 고객은 추천도서를 주고 받으면서 풍성한 그들만의 서가를 함께 만든다. 온라인 서점에선 누릴 수 없는 동네서점의 매력이다.

그렇서일까. 근래 개성 넘치는 동네서점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은 참고서나 대중잡지, 베스트

온라인 서점의 막가파식 할인이 밀려 문을 닫기에 바빠졌다. 광주의 향토서점인 '삼복서점'과 '나라서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도 그 즈음이다.

21일은 모든 책값 할인을 최대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지 꼭 3년이 된 날이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2014년 1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었다. 그러나 최근 출판계와 서점, 소비자단체가 현행 제도를 앞으로 3년간 더 유지하기로 합의해 2020년 11월까지 연장시행된다.

사실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을 살리고 책값의 거품을 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가격평등이란 취지에 맞지않게 온갖 편법이 난무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서점들이 할인제유카드 등으로 '꼼수할인'을 펴고 있는 데다 출판사의 책값 하락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도서정가제의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소설 '모모' 국내 판매 150만부 돌파

1973년 독일에서 첫 출간된 이래 47개 언어로 번역되며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미하엘 엔데의 대표작 '모모'가 국내 판매 150만 부를 넘어섰다.

'모모'는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사람들에게 찾아 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지난 2005년 '내 이름은 김삼순'에 등장하며 드라마화서의 효

시가 되었다. 특히 '모모'는 인간의 영원한 질문인 '시간'에 대해 다룸으로써 성인을 위한 동화로 자리를 굳혔다.

출판사 비룡소는 한정판 '모모-블랙 에디션'을 출간했다. 이번 '모모-블랙 에디션'의 표지는 독일에서 모모 출판 4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공모전의 수상작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h3>영광 전원주택 매매</h3> <p>전원주택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가능 최근 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3천만 매가 9천4백</p> <p>직매 010-6670-9800</p>	<h3>평택 초역세권 개발부지 매매</h3> <p>송탄역 도보 1분 건축 허가 완료</p> <p>최고의 투자처 건축 분양 최고 임대 걱정없음</p> <p>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8억</p> <p>직매 010-6670-9800</p>	<h3>경매 (주)대신경매</h3> <p>동구 계림동 상가 (어린이집) 토지 109평 건물 183평 3층 건물 (시설종류)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5억7천</p> <p>1) 서구 벽진동 (주택) 토지 176평 건물 46평 감정가 2억4,700만 → 최저가 2억4,700만</p> <p>2)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상가) 토지 62평 건물100평 주차원비,평수대비 가격저렴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2억9천</p> <p>3) 서구 금호동 (원룸빌딩) 토지 63평 건물 120평 월세 400만 예상 감정가 5억4,300만 → 최저가 5억4,300만</p> <p>4) 나주 경현동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길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7억9천</p> <p>5) 강진군 칠량면 (공장 및 창고) 토지 1,600평 건물 673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4억6천</p> <p>010-7384-7800</p>	<h3>경매교육</h3> <p>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p> <p>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p> <p>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p> <p>※ 공동 사무실 쓰실분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p> <p>010-6670-9800</p>
---	--	--	--